

여수, 청년 정책 강화...“정착할 때까지 지원한다”

취업·주거·생활·교육·결혼 등 청년정책에 520억 투입
안정적 삶에 집중...“머물고 돌아오고 싶은 도시” 구축

여수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정책 분야에 총 520억원을 투입, 청년의 준비·경험·취업·결혼·주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의 삶 흐름에 맞춰 취업 준비 단계의 비용 부담 완화부터 지역에서의 경험 제공,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주거와 자산 형성, 지역사회 참여 등 각 단계별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했다.

시행계획은 일자리(14개), 주거·정착

(21개), 생활(9개), 소통·참여(10개), 교육(7개) 등 5개 분야 61개 사업이며 이 가운데 많은 예산이 주거·정착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또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 취업 직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준비 비용을 낮추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

청년자격을 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여학 시험과 국가기술자격, 한국사 등 취업과 직결되는 시험을 대상으로 응시료를 지원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한다.



여수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사진은 여수 흥국상가 내 청년마을 가운 개소식 모습.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위한 여수학숙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

공한다. 청년들의 취·창업도 지원한다. 취업 분야에서는 여수만의 특화된 인재 양성 시스템인 테크니션스쿨과 조기취업

형 계약학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적극 가동한다.

창업 이후에는 청년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사업을 통해 세무와 노무, 마케팅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경영 전반을 진단하고, 최대 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해 창업이 실질적인 생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착 분야에 282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8억2000만원),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9억2600만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16억2400만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200호)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

를 제공한다.

또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130억 여원을 투입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문수동에 조성된 여수시 청년지원센터는 정책간담회와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청년 전용 오피스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 청년정책은 단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여수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청년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양시는 최근 청사 상황실에서 해양·물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 연구용역 보고회’를 진행했다.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본격화

광양시, 육성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화됐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해양·물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 연구용역 보고회’를 진행했다.

자문위원은 지자체, 의회, 공공기관, 연구소, 학계, 산업계, 언론, 시민단체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구용역보고회에서는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진출 여건 분석, 북극항로 거점 경쟁력 분석,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 추진 단계별 로드맵 수립, 향후 연구 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사 대표로 나온 김학소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전 KMI원장)은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이 입주해 종합적 항만이고 연간 물동량이 2억2000만t에 달해 북극항로 거점항만에 가장 적합한 항만이다”며 “부산·울산항이 갖고 있지 못한 이점을 여수광양항이 갖고 있어 거점항만 육성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여수광양항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강점(지리적 이점, 인프라), 약점(북극항로 경험 부족), 기회(북극항로 개방, 물동량 증가), 위협(지정학적 리스크, 환경규제) 등이 분석됐다.

또 북극항로 거점항만 핵심 경쟁력 제

고 방안으로 초국경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데이터주권, 공급망 설계 능력) 구축안이 제시됐으며 LNG원유 등 에너지 허브 조성, 해상 환적 등 에너지 허브 조성 등의 필요성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과 전남·광주 행정 통합은 북극항로 경제권이자 호남권 수출입 관문인 광양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며 “정치권과 전남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관련 인프라 확충, 산업 육성, 연구기관 유치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해수부가 올해 상반기에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순천,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지 자리매김

선수단 만족도 향상·지역경제 활력

순천시가 스토브리그와 전국 단위 체육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대표 동계 전지훈련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뜻한 기후, 접근성 높은 체육시설, 다양한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선수단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뚜렷한 활력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1월 초 축구 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씨름·유도·검도 등 4개 종목(총 62팀 1500여명)의 동계 스토브리그를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종목별 우수 팀들이 매년 순천을 찾고 있으며, 훈련 환경·편의시설·도시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단위 체육 대회도 풍성하다. 지난 1일 개막한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 학생 야구 대회를 시작으로, 2월 말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 3월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순천만국가정원배 오픈테니스 대회 등 6개 종목의 대회가 순천 곳곳에서 열린다.

특히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국내 태권도 유망주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유치 대회로, 지역 태권도 저변 확대는 물론 숙박·관광 등 연관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스토브리그 및 전국 대회 개최를 통해 10만여명 규모의 선수단·관계자가 순천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방문객 유입은 지역 상권 성장은 물론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더욱 확실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전지훈련 3만6000명, 전국 대회 5만4000명 등 총 9만명이 방문해 약 75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환자의 몸은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막혀버린 흐름, 미세한 변화

환자의 몸은 수액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습니까?

아이링거는 그 들리지 않는 대화를 데이터로 번역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역가입니다.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 42 (오선동)
본사 Tel. 062-954-0627 Fax. 062-954-0620
연구소 Tel. 062-972-0629 Fax. 062-972-0629